

‘고하 송진우의 항일 민족독립 운동’(이민원 발표)에 대한 토론문

이 선 민 (서울대 객원연구원, 역사학 박사)

1. 한민족의 항일 운동은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을사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후기에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전쟁의 두 갈래로 전개되던 항일 운동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된 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했다. 이들 항일 운동은 1919년 3·1운동으로 수렴됐고, 이후 무장투쟁론·외교론·실력양성론 등으로 분화돼 나갔다. 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으로 1920년대 한국에도 사회주의가 도입되면서 이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항일 운동이 형성됐다. 이런 흐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한민족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됐다.

1920년대 이후 전개된 다양한 항일 운동은 때로 갈등하고 대립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한민족의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는 노력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한국근현대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독립운동가들은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해외에서는 무장투쟁이나 외교투쟁을 지향하고, 국내에서는 소극적 저항과 장기적 목표로 실력양성에 치중했던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이념 지향에 따라서 그 가운데 특정한 세력을 강조하면서 다른 세력을 폄훼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945년 해방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통 한국인의 눈으로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초부터 8·15 해방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항일 운동을 ‘독립운동’보다는 ‘민족운동’이라는 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독립운동’이라는 틀은 한민족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실력양성에 힘썼던 국내의 교육·언론·문화·종교 운동 등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또 ‘민족운동’이라는 틀은 20세기 초부터 8·15 해방까지의 항일 운동을 그 이전인 19세기 후반에 전개됐던 개화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 위정척사운동, 그리고 8·15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펼쳐진 다양한 정치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발표자는 송진우가 ‘미래지향적 극일주의자이자 보편적 인류애를 품은 자유민주주의자’였으며, 각 분야의 실력양성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켜 과거의 적대국과 세계의 열강을 추월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고하의 꿈’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송진우의 활동과 사상을 오늘날까지 연결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의 생애를 ‘독립운동’보다는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송진우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한학과 유학을 공부했다. 그는 7세부터 10년 동안 호남의 저명한 성리학자 기정진의 문인이자 일가인 기삼연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웠다. 그는 훗날 “만약 태평성대였으면 성리학에 몰두하게 됐을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성리학에 심취했다고 한다.

송진우는 1908년 11월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인 김성수와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뒤에는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6년 귀국할 때까지 일본식 근대 교육을 받았다. 그는 조선인유학생학우회를 이끌면서 훗날 한국의 정치·사회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라성같은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끌던 요시노 사쿠조, 우치무라 간조 등 자유주의 지식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송진우의 사상에 대해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수정자본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를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도입한 인물로 보는 연구가 나와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송진우에게는 국수주의(國粹主義)의 요소가 발견된다. 발표자는 그가 1915년 『학지광(學之光)』에 발표한 「사상개혁론」에서 “민족의 단결을 위한 상징적 구심체로서 단군에 대한 숭배를 강조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직접 이를 실천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귀국 후 중앙학교 학감으로 재임하던 1917년 서울 남산에 단군·세종대왕·이순신을 모시는 삼성사(三聖祠)를 건립하려고 했다. 그리고 1920~30년대 그가 사장으로 이끌던 동아일보는 평양의 단군릉 수축 등 단군 현양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송진우가 일본 유학을 떠난 1908년은 한국에서 국수(國粹) 보존이 본격화한 해이다. 이해 8월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단군을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아이콘으로 묘사한 ‘독사신론(讀史新論)’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주시경은 그가 길러낸 제자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한글학회의 전신)를 조직했다. 또 1909년 2월에는 나철 등이 단군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대종교를 중광(重光)했다.

송진우가 이런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말 국수보전론은 성리학자에서 개신유학자를 거쳐 국수주의로 전향한 국내파 지식인들이 주도했다. 반면 송진우는 성리학을 공부하다가 바로 일본 유학을 떠나서 서구의 근대 사상에 접했다. 송진우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국수주의적 요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3·1운동은 상해의 신한청년당, 연해주와 만주의 한인, 재미교포, 재일유학생, 천도교, 중앙학교, 개신교, 학생 등 국내외에서 전개됐던 많은 움직임이 합류한 결과이다. 이들 가운데 방아쇠를 처음 당긴 것은 상해의 신한청년당이였지만 국내에서 독립선언서 발표와 만세시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그것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천도교와 중앙학교 인사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이다.

발표자는 현상윤이 쓴 「3·1운동 발발의 개요」(『사상계』 1963년 3월호)라는 글을 통해서 3·1운동의 초기 단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 글은 원래 현상윤이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 공산군에 끌려가기 직전인 1950년 3월 『신천지』에 발표한 것이다. 그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3월 「3·1운동의 회상」이라는 글을 역시 『신천지』에 썼고, 4년 뒤에 “그 기록 중에 오기(誤記)된 것이 조금 있었다. 이제 그것을 정정하는 의미로 다시 이 글을 적는다”라며 이 글을 썼다. 그는 여기서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송진우·김성수·현상윤 등 중앙학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같은 과정에 대해 적은 글은 당시 천도교가 운영하던 보성학교 교장으로 3·1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최린의 자서전이 있다. 1962년 천도교가 발간하는 『한국사상』에 처음 발표됐고, 최린의 저술을 모은 『如菴文集』(1971년 발간)에 수록된 이 글은 원래 1949년 최린이 반민특위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 최린은 3·1운동이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지시로 시작됐고, 자신이 시종일관 주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1949년 당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항변을 위해서 3·1운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1운동의 준비과정에서 중앙학교와 천도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상윤과 최린의 글, 그리고 ‘민족대표 48인’이 일본 검찰의 심문 과정, 그리고 법정에서 한 진술을 면밀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당시 손병희·최린·이승훈·한용운 등 전면에 나선 인사들은 40~50대였고, 중앙학교 인사들은 20대 후반이었다. 또 천도교와 개신교는 교단과 교회 등 종교조직을 움직일 힘이 있었다. 따라서 현상윤의 글에도 있듯이 2월 28일 민족대표들의 마지막 회동에서 “송진우·현상윤·최남선·함태영·정광조 등 (소장파들은) 잔류간부로 하여 대표자들이 체포된 후의 제반 임무를 담당할 것”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3·1운동에서 송진우를 비롯한 중앙학교 인사들의 활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